

“공모·예산집행 내실화 기해야”

무주군의회 황인동 위원, “신속집행 장·단점 분석하고 무주군 상황 맞게 집행해야”

무주군의회 제 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황인동 위원 등 공모 사업과 예산집행에 있어 속도만 강조하기보다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나 지금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00억 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인동 위원은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신속집행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동 위원은 “신속집행 기조에 공무원도 집행에만 급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은 신속집행을 포기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예산 집행의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무주군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동 위원은 또한 무주군이 공모 사업의 상당수가 건물을 짓는데 집중돼 있다며 늘어난 건물만큼 시설물 운영비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했다. “무주군이 추진한 공모사업이 작년 35건, 올해 31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신축이 포함된 사업이 많았다. 의원들이 자주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다. 그리고 서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관된 공모사업도 있다”며 부서장들이 모여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추진부서를 정하도록 기획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한 2023년 장수군 마을만들기 공동체한마당 행사가 지난 22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장수군 마을만들기 공동체한마당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26개 마을 400여명 주민 소통·화합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주관한 2023년 장수군 마을만들기 공동체한마당 행사가 지난 22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알콩달콩 함께한 우리마을, 모두 잘 됐다! 훌쩍 자랐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수군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관내 26개 마을 4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사업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간 성과물 전

시, 마을 활동영상 상영, 마을별 특색 있는 입장퍼포먼스, 마을 주민들이 출연하는 ‘장수 ON 누리 GO’ 유튜브 방송 등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간 화합을 다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의 근본은 마을이며, 마을이 활기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만들어가는 데 군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풍고 태권도 특목고 전환 사활”

무주군의회 최윤선 위원, 특목고 설립 위해 관련기관 적극 협의 당부

무주군의회 제 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윤선 위원이 무풍고(특목고) 전환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크며 관련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태권도원이 위치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태권도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태권도 특목고가 어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이 귀농정책을 펼쳐서 외부인들을 끌어모았듯 무풍고가 태권도 특목고로 전환되면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특목고는 태권도 하위관의 문제가 아니라 태권시대를 위한 디딤돌 역할과 동시에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없이 좋은 기회”라며 현재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의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윤선 위원은 “태권도 특목고를 위한 협의에 아직 태권도팀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 태권도 관련부서는 모두 나서서 특목고 전환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윤선 위원은 직원 결원 충원을 증가와 결원에 대비한 신규채용인원 확대 등은 무주군이 잘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능력이 끝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평생교육프로그램 강화를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022 회계연도 금강수계기금 성과평가 ‘우수’

진안군이 금강수계기금 성과평가에서 종합평가 2위를 차지했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1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위로 선정돼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한다.

2022 회계연도 성과평가는 기금 지원액 10억원 이상의 15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관리청별 주민 지원, 환경기초시설설치, 환경기초시설운영, 수질보전활동지원,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 1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1위,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 1위에 선정돼 종합평가 2위를 차지했다.

진안군은 특히 관리청별주민지원사업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0년간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을 분석해 마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준식 군수는 “금강수계기금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영모정서 문화재 재난대응훈련 진행

진안군은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산림과 인접한 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소방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2일 전라북도 문화재자료인 영모정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재 재난대응훈련은 진안군과 전북동부 문화재물본센터, 진안소방서 마령119안전센터, 산불진화대, 영모정 관리자 등이 협업해 진행됐다.

현실적인 화재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화재신고, △초기진화, △주민대피, △동산문화재 반출 △소방차 출동 화재진압 절차에 따라 훈련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높였다.

최초발견자의 신고부터 소방서와 산불진화대가 화재를 진압하는 것까지 각 기관들의 협력하에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모의훈련 후 문화재 관계인의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무주군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상시)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으로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를 비롯해 트랙터와 콤팩트,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등 12종이다.

대인보험·대물보험·자기신체 사고I 또는 II급(총 3가지 항목) 등은 필수 가입 사항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갑식 과장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만일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농가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80%(자부담 20%)를 군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경찰·도로공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장수군은 지난 20일 장수IC에서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한국도로공사진안지사 장수영업소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9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 3대는 영치예고 나머지 5대의 차량은 즉시 체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고관호 기자